근대 한국의 역사·풍경 담은 판화전

고판화박물관 15주년 특별전 8.18~9.23
'판화로 보는 근대 한국의 사건과 풍경' 展

금강산사대찰전도, 논산은진미륵 등 60여 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보도판화 최초 공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강산사대찰전도, 논산 은진미륵불 등 한반도 근대 풍경을 비롯하여 동학혁명과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한국의 근대사를 담고 있는 판화작품이 전시된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한 고판화박물관은 개관 15주년과 광복 73주년을 기념하여 '판화로 보는 근대 한국의 사건과 풍경' 특별전을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최한다.

문화재청과 강원도 원주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8년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열리는 첫 번째 특별전으로, 한선학 관장이 23년 동안 수집한 수집품 6천여 점 중에서 근대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판화와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 판화 60여 점을 선보인다.

2부로 구성된 전시는 1부에서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까지, 근대 한국의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판화들을 선보임으로써 광복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동학혁명 때, 남북접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양호도찰 오지영의 이름이 새겨진 동학의 태극기 목판을 비롯하여, 대한제국의 첫 황제 고종이 포함된 '세계 십대 황제 초상', 을사늑약 후 불같이 일어났던 저항정신이 깃들어 있는 민충정공의 혈죽도 목판화와 최익현 선생의 의병봉기가 기록된 '일성록' 목활자본, 1907년 한국군대 해산을 반대하며 저항했던 남대문 전투 판화와 근대 한국의 독립 운동사의 정점을 찍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대형 석판화로 표현한 작품 등이 소개된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을 그린 판화는 그 당시 새로운 판화기법인 석판화로 제작되었으며, '이토공 조난지도(伊藤公 遭難之圖)'라는 제목으로 안중근 의사를 '흉한(兇漢)'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의 저항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화면 옆면에는 보도 기사도 실려 있어 보도에도 충실하면서 판화 작품으로 감상할 수도 있게 만든 보도 판화이다.

2부에서는 1899년에 제작된 대형 목판화인 '금강산사대찰전도'를 비롯하여,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채색 석판화로 제작하여 10폭, 8폭 병풍으로 제작된 작품들과 일제강점기에 강원도가 발행한 '금강산 탐승도' 등 금강산 조감도도 다양하게 소개되며, 금강산 관광 기념 스탬프를 모은 책자에는 '신계사' 대웅전의 모습을 채색 판화로 찍은 작품도 소개된다. 일본의 세계적인 목판화 작가인 히르카츠 운이치의 평양 '목단대'와 세계적인 일본의 우키요에 작가인 가와세 하스이가 그린 '은밀대' 등 북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있는 판화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또한 광화문, 남대문을 비롯한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논산 은진미륵불 등도 전시되어 남북을 아우르는 근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



논산은진미륵 목판화 24.2×27.2㎝ / 일제강점기.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석판화, 1909년 12월 1일 동경 박화관발행 39.3×53.8㎝.

한선학 관장은 "한국 · 중국 · 일본 · 티벳 · 몽골 · 베트남 등에서 지난 25여 년 간 수집한 6천 여 점의 유물 중에서 근대 한국과 관련된 60점을 선별하여, 현재 한국의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 · 북한의 아름다운 풍경을 판화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 · 북한의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와서 분단의 아픔을 씻고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고판화박물관은 관람객이 이번 전시회의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별전 기간 동안 1박 2일 과정의 문화형 템플스테이로 '전문가와 가족을 위한 숲속판화여행, 다문화 가정을 위한 숲속판화여행'을 특별전 연계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2003년 문을 연 고판화박물관은 한 · 중 · 일 · 티벳 등 동아시아 고판화 2천5백여 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6천여 점의 고판화를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쇄박물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033)761-7885.

궁금한 사후세계 여행하며 해탈의 시간을…

'신과 함께 저승여행' 특별전
대원사 티벳박물관 8. 6 ~ 2019. 4. 7

사후세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8월 6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신과 함께 저승여행'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과 함께 저승여행' 특별전은 연이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1 · 2'의 기본 모티브인 〈불설수생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전에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예수재 의식을 직접 체험해 보는 특별전이다. 또한 불교회화의 중요한 장르이자 사후세계 대한 염원이 담긴 '시왕도(十王圖 · 보물 제1800호)'를 감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영화 '신과 함께'는 49재를 지내면서 일곱 번의 심판을 받고 일곱 개의 지옥을 지나 다시 인간세계로 환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 다른 '신과 함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지옥도를 비교 감상하고, 10대 지옥을 관장하는 시왕도, 육도윤회도, 분노존, 티벳의 장례문화인 천장(天葬)의 절차와 〈티베트 사자의 서〉 동영상 감상, 입관을 통해 죽음을 체험하는 죽음체험실, 바르도(중음) 명상실 등을 체험함으로써 사후세계의 사전 체험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위한 삼세인과(三世因果)의 법칙을 깨닫기 위한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세계 대한 염원이 담긴 '시왕도(十王圖 · 보물 제1800호)'를 감상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특별전은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섹션 1은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를 감상한다. 영조 때인 1766년에 제작된 시왕도는 10폭으로 제작되어 각 시왕마다 한 폭씩 구성 되어있다. 매 폭마다 위쪽 2/3를 재판하는 시왕과 관속으로 채우고 채색 구름으로 구분한 나머지 1/3은 중생의 재판 모습과 지옥 풍경으로 그려졌다. 어느 폭에나 지장보살이 죄를 다스리는 현장에 왕림하여 중생들의 구제를 서원하고 있다.

섹션 2에서는 예수재를 체험한다. 생전에 삼세인과를 믿고 예수재를 모시고 수생전을 다 갚게 되면 반드시 내세에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한다.

섹션 3에서는 〈死者의 書〉 동영상을 감상하고 바르도 명상 체험을 한다. 티벳 사자의 서(死者의 書)의 원래 제목은 티벳어로 〈바르도 퇴톨〉이라고 한다. 〈바르도〉란 둘 사이란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다시 환생할 때 가지의 중간사이를 말한다. 이 상태에 머무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49일이다. 그리고 〈퇴톨〉이라는 뜻은 듣는 것을 통한 영원한 해탈이라는 뜻이다. 죽음의 순간 오직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섹션 4는 죽음 체험실이다. 지상보살 앞에 놓인 목관에 들어가 자신의 죽음을 묵상해 본다. 죽음의 체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이며 영적인 성숙을 준비하는 해탈의 시간이다.

섹션 5에서는 지옥 설화에 나오는 탈 등 저승 관련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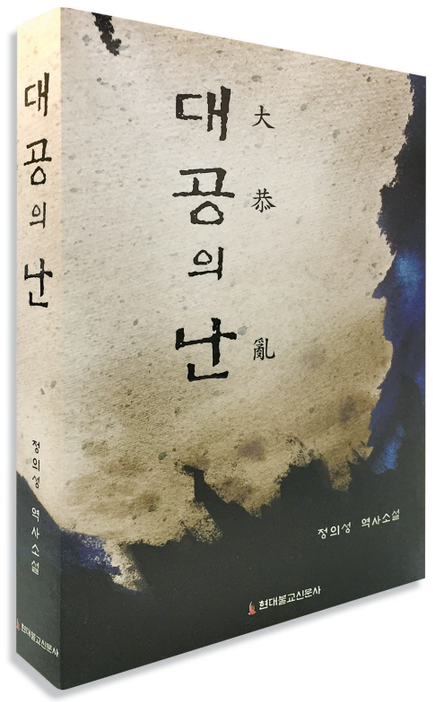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